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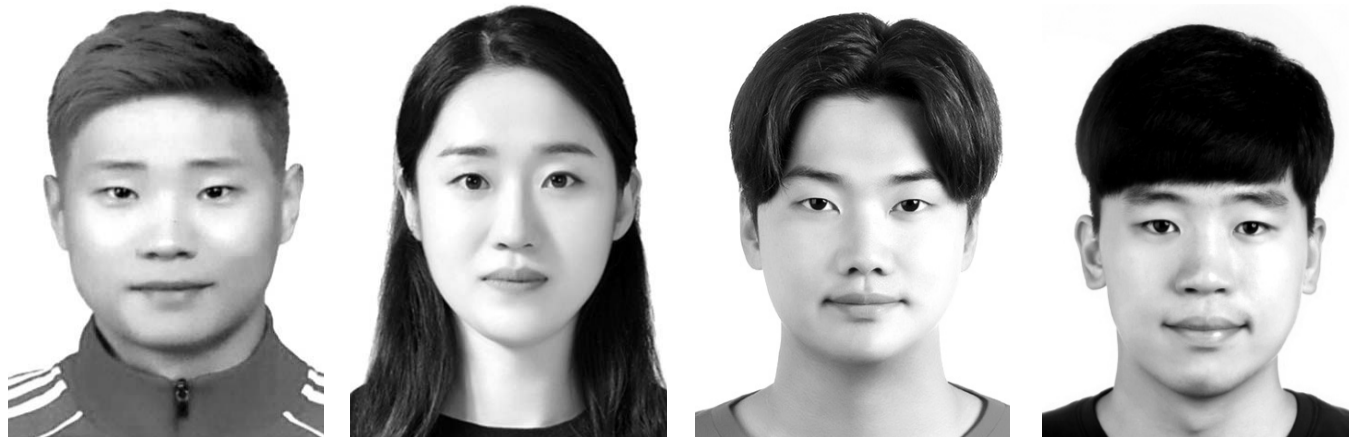
오픈워터·수구 세계대회 첫 출전... 한국 수영 새역사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대표선수 없어 한달전 선발
광주·전남 반선재·추민중·정병영·오희지 등 데뷔무대

2019 FINA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최초'라는 역사를 남기는 대회로 기록될 전망이다. 세계 수영선수권대회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에서는 일본 후쿠오카(2001년), 중국 상하이(2011년)에 이어 광주가 세 번째다. 남녀 수구와 오픈워터는 대한민국 수영 역사에서 첫 출전한 대회로 남게된다. 반선재(광주시체육회)는 오픈워터에서 데뷔전을 치른다. 세 종목 모두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따냈고, 대표 선수가 없었던 오픈워터 수영과 여자 수구는 최근 급히 선발전을 통해 팀을 꾸렸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달 9일 선발전을

통해 오픈워터 수영 종목에 출전할 한국 대표 8명을 선발했다. 남·여 5km와 10km에서 각각 두 명씩 총 8명의 선수가 뽑혔다. 반선재는 이번 대회가 세계수영선수권 데뷔 무대다. 그는 제99회 전국체전 계영 800m 1위, 자유형 800m 3위, 자유형 400m 3위를 차지한 중·장거리 선수다. 제14회 제주 한라배 수영대회 자유형 1500m 1위, 2019 오픈워터 국가대표 선발전 5km 1위에 올랐다. 반선재는 "흙에서 열리는 대회이니 만큼 개인 기록에 도전하겠다. 워터 워터가 생소하겠지만, 이번 대회가 오픈워터 경기를 알리는 등 저변을 넓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오픈워터 수영 경기는 13일 오전 8시 남자 5km 종목을 시작으로 차례로 펼쳐진다. 결선 없이 바로 본선으로 치러지는 종목 특성상, 이번 세계선수권 첫 금메달이 남자 5km 경기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 남녀 수구 대표팀은 이번 대회가 첫 세계선수권이다. 남자대표팀에서는 추민중(전남도 수영연맹), 정병영(한국체대), 한효민(한국체대)이 출전한다. 추민중은 제99회 전국체전 남자일반부 3위, 제98회 전국체전 2위를 차지하는 등 관록을 자랑한다.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냈던 남자 수구 대표팀은 이후 점차 국제무대에서 경쟁력을 잃어가며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다.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는 5위에 머물렀다.



추민중 반선재 한효민 정병영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남자 수구에는 총 16개국이 출전했다. 개최국 자격으로 출전권을 따낸 한국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그리스와 함께 A조에 속했다. 세르비아는 2017년 부다페

스트 대회 3위에 올랐던 강호다. 그리스와 몬테네그로도 당시 세르비아의 뒤를 이어 4위와 5위를 차지했다. 남자 수구 대표팀은 15일 그리스와 첫 경기를 치르고 17일 세르비아, 19일 몬테

네그로와 대결한다.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첫 출전한 여자 수구대표팀에서는 오희지, 진만근(이상 전남도수영연맹) 코치가 활약할 예정이다. /특별취재단=윤영기 기자 penfoot@

원시시대 생존 위해 수영 시작 1980년대 '국민 스포츠' 부상 '수영하면 어깨 넓어진다'는 건 오해



광주세계수영대회를 앞두고 수영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수영 관련 자료를 찾아보아도 시원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는 드물다. 광주 세계 수영대회에서 공식발간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수영 상식과 역사 등을 소개한다. ◇수영의 역사=원시시대 물 속에서 먹을 것을 구하거나, 강 건너로 거주지를 옮기거나 이동할 때 자연스럽게 터득했다는 게 통설로 알려져 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귀족에게 수영을 가르치기도 했다. 페르시아에서는 신체단련·군사훈련의 과정으로 배웠고, 그리스에서는 일반인들이 즐겼다고 전해진다. 최초의 영법(泳法)은 크롤(Crawl)로 알려져 있다. 1873년 영국의 존 트러전이 처음 공개한 크롤은 수영에서 가장 빠른 영법으로, 자유형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오개혁 이후 체계적인 수영지도와 보급이 시작됐다. 1946년

대한수상경기연맹 창립으로 보급이 확산됐으며, 1980년대 근대화와 더불어 국민 스포츠로 발전했다. 우리나라 대표선수들이 첫 국제 대회에 참가한 것은 1956년 도쿄아시아대회. 첫 올림픽 참가는 1964년으로 기록돼 있다. 국제대회 첫 금메달리스트는 1970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첫 금메달을 딴 조오련 선수다. 박태환은 올림픽(2008년 베이징) 첫 금메달 리스트다. ◇역대 최다관왕='수영 황제' 마이클 펠프스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6관왕, 베이징 올림픽 8관왕을 달성하는 등 세계 수영계를 지배했다. 2012년 런던, 2016년 리우 올림픽까지 그가 쓸어담은 메달은 모두 28개다. 한국에서는 '아시아의 물개'라는 애칭으로 불린 조오련씨가 대표적 인물이다. 1970년 방콕, 19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인 조오련은 한국 수영의 역사다. 그는 은퇴할 때까지 무려 50여개의 한국 신기록을 작성했다. 대한해협 횡단, 한강 700리 종주, 독도 33부위 헤엄쳐 돌기 등에 성공하면서 인기를 누렸다. 그의 삶과 투혼을 기리는 공간이 전남 해남에 있는 '조오련 수영장'이다. 조오련 이후 가장 각광받은 선수는 박태



"유니폼 맵시 어때요" 광주여대는 10일 광주시 광산구 캠퍼스 본부 1층 국제회의장에서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유니폼 설명회·최종리허설을 진행했다. 유니폼을 입은 시상식 요원들이 맵시를 선보이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환. 그는 2006년 도하아시안게임 3관왕에 오르며 조명받았다. 2007년 멜버른 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자유형 400m에서 한국 수영 사상 첫 세계대회 1위에 올랐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자유형 400m에

서 금메달도 따냈다. 그는 광주세계 수영 선수권대회에 출전하지 못하지만, 홍보대사 역할을 해내고 있다. ◇수영에 대한 오해=수영을 하면 피부가 물을 흡수하기 때문에 몸무게가 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몸에서 수분이 배출

돼 체중이 준다. 수영을 하면 어깨가 넓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어깨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수영을 하면 굵었던 어깨가 퍼진다. 수영 선수들이 쓰는 모자는 위생 용도로 알려져 있다.

선수들은 머리총을 막고 물의 저항을 줄이는 등 기록단축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착용한다. 마이클 펠프스를 비롯해 박태환 등 많은 선수가 수모를 2개씩 착용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별취재단=윤영기 기자 penfoot@

그린알로에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